

농정뉴스



병해충방제 퇴비증산철저 당부

쏘대통령

벼작황 시찰하며 격려

쏘대통령은 지난달 19일 忠南 · 論山, 全北 · 金堤, 全南 · 長城 일대의 벼농사작황을 돌아보고 후기 병해충방제철저 및 퇴비증산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.

쏘대통령은 이날 全南도청에 들러 金宗鎬 全南도지사로부터 당면주요업무를 보고받고 『우리나라 토양이 극도로 산성화되어 있으므로 퇴비증산에 힘써 토양을 개량하는데 적극 노력하라』고 수행한 徐廷和 내무 · 高

建農수산부장관에게 지시했다.

이어 全南 長城읍 岐山리에 「힐리콥터」편으로 도착한 쏘대통령은 금년에는 날씨가 좋고 병해충발생도 심하지 않아 앞으로 태풍피해만 없다면 평년보다 15%의 증수가 가능할 것이라는 현지농민 및 관계관의 보고를 듣고 『벼멸구등 병해충방제에 만전을 기해 뒷마무리를 철저히 하라』고 지시했다.

농수산부

전지도요원 예찰정예화

「논 한필지 더 헤쳐보기」운동 전개

농수산부는 지난달 20일 당면 병해충방제를 위한 방제실무협의회 회의 협의결과를 관계기관에 시달렸다.

농수산부는 이 시달을 통해 농촌 진흥청장은 전 지도요원을 예찰정예반으로 편성, 운영토록 하고 「논 한필지 더 헤쳐보기운동」을 전개하여 중 · 만생종의 목도열병 · 벼멸구발생

밀도등을 정확히 예찰하여 적기방제에 최선을 다하라고 강조했다.

농수산부는 특히 적기방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작금기관은 막바지 병해충방제추진을 위해 현지확인지도반을 파견, 방제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할것도 아울러 지시했다.